

##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실천: 회개용서운동<sup>1)</sup>



이경직(백석대 신학대학원 교수, 조직신학)

### I. 들어가는 말

백석대학교는 2014년 11월 1일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에 회개용서운동을 새롭게 추가했다. 백석총회는 2013년 9월 9일 개혁교단과 통합한 이후 2014년 12월 16일 대신교단과 통합선언총회를 하는 등 분열로 찢겨 있던 한국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백석총회는 한국교회의 분열에 대해 회개하고 서로에 대해 용서하는 일이 한국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살리는 길임을 깨닫고 이 일을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실천운동에 포함시켰다.

종교개혁시대의 교회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성찬에 관한 교리를 둘러싸고 서로 의견 차이를 보였고 그 결과 서로 분열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위협 가운데 종교개혁교회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 것은 치명적이라 여긴 칼빈은 개신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라면 ‘열 개의 바다도 건너겠다’는 마음을 품었다. 이를 위해 그는 교리를 교회

1) 이 글은 『백석신학저널』 28 (2015), 7-37에 게재된 논문을 고신대학교 조직신학교수로 봉직하신 이환봉 교수님의 은퇴와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기 위해 투고한 글임을 밝힌다.

2) 장성진, “교회 일치에 대한 칼빈과 바빙크의 이해,”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6-7.

일치와 관련하여 본질적인 교리와 그렇지 않은 교리로 나누어, 개신 교회들의 일치를 추구하고자 했다.<sup>2)</sup>

한국 로마 가톨릭 교세의 확대와 이단들의 득세, 기독교의 대사회적 영향력 약화 등의 현상 앞에서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교회 분열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과 일치이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의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분열하기도 했다. 신사참배는 일제의 강압 통치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수호와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입장과, 신사참배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내적으로 회개했으면 되었다고 여기는 입장, 신사참배에 대해 공개적으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회개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맞섰다.<sup>3)</sup> WCC 가입 문제 등으로도 한국교회는 서로를 용서하는 일보다는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sup>4)</sup>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이기도 하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회개용서운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여겨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를 지향한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무엇이 회개이며 용서이고,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발표에서는 회개와 용서가 무엇이며, 양자의 관계는 어떠하며, 회개와 용서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 II. 용서 논의의 필요성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없

3) 안수강, “신사참배 회개론의 유형별 연구,” 『한국개혁신학』 42 (2014): 48-52.

4) 이후정, “회개 - 참된 기도와 개혁에 이르는 길”, 『충만한 영성의 삶을 위하여(7) 회개』, 206.

다.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이다.<sup>5)</sup> 우리가 매일 만나는 현실은 정의가 언제나 시행되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sup>6)</sup> 신체적 상처와 정신적 상처 때문에 의사와 상담자가 필요하고, 재산과 명예 등의 상처 때문에 법률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한다고 해서 그 보상이 이전의 상처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다시 원상 복구할 없는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보상이나 원상복구뿐 아니라 용서도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sup>7)</sup>

그런데 용서는 쌍방 중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점에서 용서의 복잡성이 있다. 그런데 용서를 대하는 두 가지 극단적 태도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문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너무 빨리 용서하는 태도이다.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힘들어 빨리 용서하는 경우이다. 또는 가해자와 나쁜 관계에 있는 것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빨리 용서하는 경우이다. 또는 가해자에게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부채의식을 안겨 그를 통제하고 싶어 용서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치심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온전한 용서라 보기 어렵다.<sup>8)</sup>

손철우의 지적처럼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용서를 즉각 시행하라는 당위를 강조했다. 예수님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sup>9)</sup>고 말씀하셨다.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5) 김시원, “용서의 윤리와 기독교 구속론의 새로운 해석,” 『한국여성신학』 79 (2014), 105.

6) 손철우,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용서,” 『생명과 말씀』 8 (2013): 169.

7) 이은선, “사실적 진리와 정의, 그리고 용서의 관계에 대하여,” 『새가정』 61권 669호 (2014.9): 15-16.

8) 손철우,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용서”, 179.

9) 타인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드러난 결과라고 해석하는 최갑종 교수의 특강(2014년 가을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을 참조하라.

용서를 얻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우리에게 생긴다.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좋은 의도를 지니고 도와주려는 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sup>10)</sup>

피해자가 이처럼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 상처는 더욱 은폐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는 불가능해진다.<sup>11)</sup> 용서가 시작되려면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를 용서하는 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서도 안 된다. 가해자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여겨서도 안 된다. 가해자의 잘못된 행위를 잊으려 해서 망각해서도 안 된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다. 용서는 기억하지만 처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2)</sup>

또한 손철우가 지적하듯이 가해자를 상담하는 경우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 충분히 권면하기보다는 빠른 죄 용서 선언을 통해 가해자의 죄책감을 덜어주는데 주력할 수도 있다.<sup>13)</sup> 그 경우 영화 <밀양>에서 보듯이 가해자는 죄책감에서 벗어난데 만족하고 피해자에

10) 김시원, “용서의 윤리와 기독교 구속론의 새로운 해석,” 116-117.

11) 김시원, “용서의 윤리와 기독교 구속론의 새로운 해석,” 107-108.

12) “Forgiveness,”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Forgiveness>.

13) 손철우,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용서,” 191-192.

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다. 회개는 미안한 감정을 품거나 후회한다고 해서 온전한 회개는 아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것이다.<sup>14)</sup> 가해자의 잘못을 일깨우고 권면해야 하는 책임은 피해자에게만 있지 않고 공동체 안에 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며 …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고 말씀하실 때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레 19:17)고 말씀하신다.<sup>15)</sup>

목회자에게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살전 2:11).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릴 수 있다(마 3:8-9).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주셨을 때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눅 19:8)고 약속했다.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눅 19:9)고 선언하셨다. 용서를 다루는 레위기 제사법이 보여주듯이 회개와 속죄제사행위가 있어야 용서가 이루어졌다. 이는 회개가 후회와 한탄과 같은 내적 감정만이 아니라 보상 행위 등과 같은 외적 행동도 포함함을 보여준다.<sup>16)</sup>

사도행전 3장 12-26절에서 유대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행동을 강조하는 epistrophe와 마음 내면의 상태를 묘사하는 metaneo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sup>17)</sup>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 이상 가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결심을 포함하며, 이전의 악행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14) 존 파이퍼, “회개, 용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 번역, 정리 정승원,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39 (2007 여름), 139.

15) 강영욱, “죄, 회개, 용서,”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no.402 (1999.9. 우리신학연구소), 8.

16) 정연호, “구약성경과 유대교의 속죄와 ”째다카“, 『구약논단』 35 (2010), 170.

17) 김성규,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회개권고(행 3:12-26),” 『신약논단』 20권 4호 (2013년 겨울), 985-986.

행동을 포함한다. 그러하기에 구약의 백성들은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였다.”(왕하 11:18)<sup>18)</sup>

### III. 과정으로서의 용서

그런데 용서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그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향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나를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느냐?”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벧전 3:9)는 말씀의 수신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그리스도인이다. 가해자를 향한 피해자의 태도를 권면하는 말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가해자가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왜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느냐?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용서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 것처럼 회개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아니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회적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도, 그러한 말을 반복할 수 있다. 츙빙글리가 잘 지적하듯이 가해자는 회개가 “잠시 동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옛 삶에 대해 부끄러워함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sup>19)</sup> 입을 깨달아야 한다.

용서를 한 번에 완결되는 일회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우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감정과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용

18) “Repentance,”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Repentance> 2015/04/06.

19) Huldrych Zwingli, *Commentary On True and False Religion* (Durham: Labyrinth, 1981), 131 - 132.

서 능력이 마치 성화 능력처럼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sup>20)</sup>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해야 하는 당위를 지니지만, 칭의와 동시에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는 못한다. 이전의 잘못과 구습을 되풀이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성품과 삶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현하는 능력이 발전해가는 과정이다.

성경을 보면 때때로 화해를 이룬 것처럼 보여도 그 화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그러한 예이다. 피해자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한 가해자 야곱은 압박 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회개의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속이는 자’라는 뜻을 지닌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야곱을 죽이고자 400명을 이끌고 온(창 23:6)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어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창 33:4). 이는 형제간의 아름다운 화해 장면이다.<sup>21)</sup> 그러나 가해자 야곱은 여전히 에서의 용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에서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창 33:12)고 제안할 때, 야곱은 이 제안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형제가 서로 만난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창 33:16-17). 그렇게 극적인 화해를 이룬 형제들이지만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창 45:5)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20) 손철우,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용서”, 169-170.

21) 김정원, “목을 안고 우리나라(창 33:1-4)”, 『제15회 개혁주의생명신학 학술대회』(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2015.4.21.), 1.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창 50:15)하고 걱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창 50:17)라고 요셉에게 요청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용서를 이전에 온전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은 시점에 요셉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기를 간청하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자신의 용서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울었으며,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창 50:21).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단번에 온전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이 불안해할 수 있다. 우리의 신뢰와 감정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에 문제는 용서하는 피해자 쪽에 있지 않고 용서받은 가해자 쪽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지금도 매번 우리의 죄 용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는 피해자의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피해자와 온전한 만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거듭 죄 용서를 확인시켜주는 일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죄용서 제공이 법적으로 객관적으로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주관적으로 수용되고 누려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주셨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사죄선언을 듣는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 있다 할 수 있다.

용서를 곧바로 완전하게 시행해야 하는 사건으로만 여기는 태도는 피해자의 불완전한 용서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책감을 안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더 큰 상처를 받게 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손운산의 지적처럼 “심리적으로 건

강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한 용서”가 힘들어질 수 있다.<sup>22)</sup>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용서를 촉구하는 태도는 가해자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권면과 권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는 잘못을 조장하기 쉬웠다. 이는 용서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화해(reconciliation)에 이르지 못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되풀이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sup>23)</sup>

용서를 대하는 또 다른 극단은 용서를 불가능한 일로 여기는 것이다. 특히 용서를 화해와 동일시할 때 이런 극단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용서는 한 번에 완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화해는 용서의 과정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이지 그 과정 자체는 아니다. 손철우의 지적처럼 용서 없이는 화해가 불가능하지만 아직 화해가 없는 상태에서도 용서의 과정은 진행될 수 있다.<sup>24)</sup>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를 용서하셨지만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객관적 용서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과 회개가 있어야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가해자의 잘못 인정이나 회개가 없어도 용서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용서를 불가능한 일로 여기는 극단적 태도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용서는 단 번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며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용서는 화해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화해라는 목표를 향해 용서의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을 때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화해를 향해 나아가는 용서의 과정을 포기할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는 우리 인간 스스로 이

22) 손운산, “수치심의 치료와 용서,” 『신학사상』 147 (2009 겨울), 253.

23) 손철우,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용서”, 169-170.

24) 손철우,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용서”, 180.

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실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따르면 용서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나 사건을 사면해주는 법적 행위만이 아니라 역사의 완성에서 이루어질 종말론적 화해이기도 하다.<sup>25)</sup>

#### IV. 죄와 무조건적 용서

그런데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용서는 죄 용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는 죄를 사회 규범이나 법을 어기는 행위로만 축소하거나 죄 개념 자체를 부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심리학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인은 죄를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보기보다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의무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의 ‘형무소’라는 이름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일종의 질병이 치유되어야 하는 ‘교정소’나 사회로 복귀한 후에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도소’라는 이름이 사용된다. 현대인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잘못에 대해 그 잘못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돌리기보다 조상 탓이나 환경 탓 등으로 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하기에 한국 로마 가톨릭에서도 신자들의 냉담의 원인을 죄 고백을 해야 하는 ‘고해성사’에서 찾고 있다.<sup>26)</sup> 일반 상담이 상담의 목적을 일차적으로 내담자의 회개보다는 그의 죄책감 해소에 두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sup>27)</sup> 그러나 성경은 죄가 일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

25) Bultmann, R., “aphiemi, aphasis, pariem, pareti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1 ed. by G Kittel (Grand Rapids: Eerdmans, 1964), 512.

26) 김정우, “죄와 용서에 대한 윤리 신학적 소고,” 『가톨릭사상』 42 (2010): 152-154.

27) 서영원, “기독교상담에서 회개를 통한 치유적 효과,” 『복음과 실천신학』 18 (20087 가을), 175-176.

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만 극복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여긴다.<sup>28)</sup>

죄를 심각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을 수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심각하지 여기지 않을 때에는 자신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수 없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롬 5:20) 용서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일이 있어야 한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경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누우치는 회개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용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aphiēna*는 ‘직무나 빛과 같은 법적 관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하기에 ‘과거의 일이 과거에 머물게 하다’나 ‘탕감하다’는 의미를 지닌다.<sup>29)</sup>

용서의 대상은 때때로 과거의 특정 행위일 수도 있고 가해자의 인격 자체일 수도 있다. 전자인 경우 우리는 어떤 행위는 용서하더라도 또 다른 행위는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법체계가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각 범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용서를 베풀기 때문이다. 용서의 대상이 가해자의 인격 자체인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용서의 대상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또한 용서의 대상은 회개의 가능성을 지닌 생존자일 수도 있고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사망자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용서는 가해자의 용서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28) 서영원, “기독교상담에서 회개를 통한 치유적 효과,” 170-171.

29) Bultmann, “*aphiēmi, aphasis, pariēmi, paresis*” 509.

30) Ingvar Johansson, “A Little Treatise of Forgiveness and Human Nature,” *The Monist* 92 (4) (2009), 537.

화해는 보장되지 않는다.<sup>30)</sup>

성경에 따르면 용서의 완성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이다. 따라서 용서는 시간이 걸리는 일련의 과정이다. 손철우가 지적하듯이 피해자는 용서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가해자와의 화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그 용서의 동기는 이기적이다.<sup>31)</sup>

오늘날 기독교적 용서는 무조건적이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sup>32)</sup> 실제로 손실과 상해를 복구하는 회복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회개가 없이도 용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sup>33)</sup> 2006년 10월 찰스 로버트(Charles Carl Robdrts IV)라는 사람이 펜실베이니아 주의 니켈 마인즈(Nickel Mines) 마을의 아미쉬 공동체에 속한 웨스트 니켈 마인즈(West Nickel Mines) 학교에 들어와 10명의 소녀들에게 총을 쏘아서 그 중 다섯 명을 죽이고 자살했다. 아미쉬 사람들은 살인자를 비난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용서했으며, 살인자의 추도예배에까지 참석해서 유족을 위로했다. 살인자는 이미 죽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거나 보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34)</sup>

무조건적 용서는 정의에 대한 요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이라는 원칙에 충실 하는 정의는 과거 악행에 보응하는 처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정의와 달리 용서는 가해자가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해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미래에 보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용서

31) 손철우,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용서”, 176.

32) Kevin Lewis, “Conditional Forgiveness”,  
[https://itlnet.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00:is-conditional-forgiveness-biblical&catid=43:systematic-theology&Itemid=78](https://itlnet.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00:is-conditional-forgiveness-biblical&catid=43:systematic-theology&Itemid=78).

33) “Forgiveness,” Wikipedia.

34) Andrew Fiala, “Radical Forgiveness and Human Justice,” *The Heythrop Journal* 53, no. 3 (2012), 494.

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정의와 모순되지 않는다. 도리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처벌할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때 그러한 방식의 용서는 정의와 모순된다.<sup>35)</sup> 그러하기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아미쉬 사람들처럼 무조건적 용서를 베푸는 것은 정의와 모순되지 않는다. 데리다(Jacque Derrida)의 표현처럼 “용서는 용서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용서의 시작은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다.<sup>36)</sup> 용서를 제공하는 일은 가해자의 회개에 달려 있지 않다.<sup>37)</sup>

## V. 용서와 회개

그런데 많은 경우 성경은 가해자가 용서 받기 이전에 회개하라고 촉구한다.<sup>38)</sup>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라고 고백한데 반해 나머지 한 사람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눅 23:40-41) 예수님은 첫 번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다(눅 23:43).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지만”(고후 5:14),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4:17, 막 6:12)는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다(눅 17:3). 이전 죄에 대해 회개했던 사람이 또 동일한 죄를 짓더라도 그가 회개하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한다. 예수께서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눅 17:4)고 하시기 때문이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35) Andrew Fiala, “Radical Forgiveness and Human Justice,” 499.

36) Ingvar Johansson, “A Little Treatise of Forgiveness and Human Nature,” 544.

37) Andrew Fiala, “Radical Forgiveness and Human Justice,” 495-496.

38) Rev. Renee, “If No Unconditional Forgiveness, Then What About “Father Forgive Them,”” <http://www.luke173ministries.org/466810>.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대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가해자의 죄 고백이나 회개가 없는데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마 6:12)라고 기도하라고 하신다. 여기서 죄 용서의 전제조건으로 죄 고백이나 회개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고 하셨다. 비록 백부장이나 로마 군인들은 그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잘못인지를 모르는 상태였지만, 아직 죄 고백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신 후 백부장은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었도다”(눅 23:47)고 고백했으며,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눅 23:48)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 백부장과 무리들의 태도가 단순한 후회와 한탄이 아니라 회개였는지는 본문에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뉘우쳤지만 그 뉘우침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마 27:3, 5). 그러나 만일 백부장의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었다면, 우리는 백부장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죄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sup>39)</sup>

이 경우 우리는 그 용서를 하나님과 백부장 사이의 화해에까지 이른 온전한 용서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용서를 가해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는 용서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인간의 주관적 반응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용서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기에 결국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느 보

39) Kevin Lewis, “Conditional Forgiveness”.

편구원론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온전한 의미의 용서인 화해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백부장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잘못을 계속 행하려고 하는 사람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셔야 한다고 하면서 그 용서를 남용하고 계속 악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이다.<sup>40)</sup>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신다. 하나님의 용서 제공은 무조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용서의 효력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회개에 따라 결정되며, 그런 점에서 조건적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실로암 망대가 무어져 죽은 사람들처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3)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눅 17:3)고 하신다. 이는 가해자가 주님의 용서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제공하는 경우 양자 사이의 갈등의 요소가 줄어들지만, 가해자가 회개하고 그 용서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 갈등은 사라지고 화해가 성립된다.<sup>41)</sup>

또한 회개를 요구하지 않은 채 용서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일은 가해자를 해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상담할 때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그들의 최악된 성품과 행위를 교정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가해자의 마음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가해자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의사가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 때때로 아픈 과정의 치료과정을 요구해야 하듯이, 목회자도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영적 질병을 진단해야 하며, 기도와 권면을 통해 때로 아

40) Rev. Renee, “If No Unconditional Forgiveness, Then What About “Father Forgive Them”,.”

41) David Murray, “Let’s Stop Forgiving Those Who Don’t Want Forgiveness,” April 7, 2014. <http://headhearthand.org/blog/2014/04/07/please-stop-forgiving-those-who-dont-want-forgiveness/>

픈 과정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물론 “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가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칼빈이 교회의 권징이 사랑과 온유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 말씀에 따른 권면과 영적 지도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sup>42)</sup>

그렇다면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들은 무엇일까? 먼저 피해자에게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 대해 분노하며,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용서가 이루어질 때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품은 분노를 축소하거나 없애며, 가해자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약속을 하고 분노심을 누그러뜨리는 일은 시간과 노력이 따르는 과정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분노를 숨기고 거짓으로 죄 용서를 약속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sup>43)</sup>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했던 코리 텐 붐(Corrie Ten Boom, 1882-1983) 여사는 독일 나치에게 쫓기던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독일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가 기적적으로 석방되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간증집회를 했다. 독일 뮌헨의 한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 순간 그녀는 독일 수용소 간수였던 남성이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 순간 그녀는 그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분노와 미움과 같은 감정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42) Kevin Lewis, “Conditional Forgiveness”.

43) Ingvar Johansson, “A Little Treatise of Forgiveness and Human Nature,” 545.

## VI. 전인격적 용서의 단계: 의지와 지성, 감정

용서와 관련하여 많은 신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다. 가해자를 용서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를 향한 악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용서는 가해자의 회개를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는다. 때때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는 시작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품는 미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계속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사랑스럽게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때문이다(롬 12:9).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미 3:2)는 것이 도리어 문제이다. 도리어 성도들은 “악을 미워하라”(시 97:10)는 명령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잠 8:13) 손운산의 지적처럼 일차적으로 용서는 가해자에 대한 악감을 좋은 감정으로 바꾸는 일이 아니다.<sup>44)</sup>

그러나 나쁜 감정이 있다고 해서 용서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다(롬 5:8).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상태였다(롬 5:10). 우리는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진노와 미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고 그 의지대로 그 일을 실행하셨다. 예수님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고 하시면서 이러한 사람이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마 5:48). 만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면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원수

44) 손운산, “수치심의 치료와 용서,” 254.

가 아닐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과정은 죄 용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벌코프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은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sup>45)</sup> “유혹자가 밟은 과정은 아주 뚜렷했다.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의 명령이 사실상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sup>46)</sup> 유혹자는 먼저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의문을 품게 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 하와는 의지에 문제가 생기자 지성의 판단에도 문제를 일으켰다. “범죄하면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지성에 문제가 생기자 그녀의 감정에도 문제가 생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창 3:6)로 보였기 때문이다. 의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데 반해 감정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이는 의지와 지성, 감정을 모두 갖춘 전인적 인간이 타락할 때 의지가 첫 출발점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죄가 의지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죄 용서도 의지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더라도,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판단이 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원하신다면 죄 용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전히 용서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나쁜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고 용서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아직 가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가식이나 자기기만이 아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일치시키는 작업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다.

45) Berkhof,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437.

46) Berkhof, 『조직신학』, 438.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회개용서운동의 실현을 위해 기도성령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롬 7:23)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 뉘우치는 회개 없이 드리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다. 참된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의지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47)</sup>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도록 해주신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할 때에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해자를 단 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떨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의 죄된 의지와 판단,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상태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실 것이다. 손철우가 지적하듯이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된 의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용서의 시작을 위한

47) 이후정, “회개 - 참된 기도와 개혁에 이르는 길”, 213.

기도를 시작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부탁할 필요도 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용서의 시작이 가능하도록 하실 것이다.<sup>48)</sup>

손운산의 지적처럼 용서를 받아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것은 가해자의 몫이지만, 가해자에게 용서를 제공하는 것은 가해자의 회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 가해자를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이 일이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으로 넘어가게 하시기에 이 일이 가능하다. 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더 이상 가해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sup>49)</sup>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의지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의 단순한 지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된다. 개인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우위에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적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내가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다.<sup>50)</sup> 그러할 때에 우리는 참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자신의 지성적 판단을 놓은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때 참다운 회개의

48) 손철우,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용서”, 197-198.

49) 손운산, “수치심의 치료와 용서”, 271-273.

50) 이후정, “회개 - 참된 기도와 개혁에 이르는 길”, 211.

기도를 드릴 수 있다.<sup>51)</sup> 그러할 때 우리는 “원수의 죄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우리의 의지와 이성이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따르게 되는 경우 우리의 감정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 이전에 우리에게 용서하는 일은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용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일이 된다. 이전에 즐겁게 여겨졌던 모든 악들은 추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더 이상 먹음직하지도 않고 보암직하지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도 않는다. 우리에게 그 나무는 역겹게 추하게 보인다.

용서가 전인격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타락이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이 의지와 지성, 감정의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용서도 의지와 지성, 감정의 순서대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sup>52)</sup>

## Ⅶ. 용서의 목표: 화해

손철우가 잘 지적하듯이 용서는 가해자의 잘못을 정당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망각하는 것도 아니다. 가해자의 과거 잘못을 기억하면서도 그 기억이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인간의 죄악을 올바른 것이라 평가하지도 않으셨고 묵인하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죄가 되어 우리 죄악의 형벌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와 관련하여 우리를 아담의 죄와 연결해서 보지 않으신다.<sup>53)</sup>

51) 이후정, “회개 - 참된 기도와 개혁에 이르는 길”, 207.

52) 이는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연결해서 이해될 수도 있겠다. 의지가 왕 직분과, 지성이 선지자 직분과, 감정이 제사장 직분과 연결된다면, 용서의 과정도 삼중 직분을 통해 설명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런데 용서는 피해자의 변화뿐 아니라 가해자의 변화도 요구한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는 용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완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는 용납이고 묵인(condonation)일 뿐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비록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잘못을 용납함으로써 가해자의 과거 행위 때문에 자신에게 생긴 일에 매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원한에 매여 괴롭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해자가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용서는 가해자의 회개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다. 이런 경우 가해자의 변화가 없어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를 묵과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의미가 있고 유익한 일이다.<sup>54)</sup>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할 힘을 더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정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과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을 서로 달리 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회개하는 사람은 미래에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의 과거 잘못된 행위를 용서할 때 자신뿐 아니라 가해자의 미래도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를 용서한다고 해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미래의 또 다른 잘못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할 때에는 가해자를 용서하고자 하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반인권적 행위를 무조건 용서하기보다 잘못된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 용서를 베푸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sup>55)</sup>

53) 손철우,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용서”, 177-180.

54) Ingvar Johansson, “A Little Treatise of Forgiveness and Human Nature,” 546.

55) Ingvar Johansson, “A Little Treatise of Forgiveness and Human Nature,” 546-547.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잠 28:13)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요일 1:9). 이처럼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는 한 차원 더 진전될 수 있다.

피해자의 변화와 가해자의 변화가 함께 일어날 때에 용서는 화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가해자 편에서 볼 때에 용서는 선물이지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끔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용서하지 않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덧씌우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힌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수신자는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엡 5:22)는 말씀은 아내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 남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은 아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따로 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 5:25)

가해자에게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해야 할 의무이다. 피해자가 하나님께 가했던 손실과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피해자와 화해되려면 피해자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며, 회개의 열매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또 다른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요구할 권리가 가해자에게 없지만, 가해자를 용서해야 하는 의무가 피해자에게는 있는 셈이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때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

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지만, 피해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에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도덕적 의무도 지닌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탕감의 선물을 가해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선물이 된다. 피해자는 그보다 더 큰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그 보상은 이전의 피해를 단순히 복구하는 응보적 정의의 실현에 그치지 않는다.

삭개오가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것의 4배를 갚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의 회개와 보상 행위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면 그는 동일한 액수만 갚으면 되었을 것이다. 도리어 삭개오는 자신의 죄 용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4배의 배상금을 통해 표현했던 것이다. 피해자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가해자가 말하는 순간, 우리는 가해자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가 보상을 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회개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우리의 회개가 거짓인 것과 같다. 감사는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용서의 결과이며, 회개의 표현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며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누그러뜨렸으며 그러한 분노와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가해자를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생각하기 시작하며, 가해자에 대해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지 않으며, 가해자에게 직접 말을 걸 수 있어야 한다. 용서를 받은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어야 하며, 더 이상 그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며, 그 행위에 대해 후회해야 하며, 더 이상 가해자가 되지 않고자 약속해야 하며,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깊이 공감해야 하며, 그가 잘못을 저지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sup>56)</sup>

그러하기에 어그스버거(Augsburger)도 화해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sup>57)</sup> 그에 따르면 “은혜, 진실, 용납, 직면, 희생, 책망”이 모두 용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는 화해에 이르는 진정한 용서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손철우가 지적하듯이 우리가 피해자일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고 화해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우리가 가해자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온전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다.<sup>58)</sup>

용서는 우리를 보복의 악순환이라는 과거로부터 자유케 한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행 2:24)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과거의 잘못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행 2:24).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면서도 그 기억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한다. 도리어 용서는 가해자의 과거 잘못에 대한 기억을 통해 미래의 잘못을 경계함으로써 가해자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한다.<sup>59)</sup> 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용서하는 사람의 심혈관계와 신경체계의 기능이 분노하는 사람의 그것보다 개선되었다.<sup>60)</sup> 용서하는 사람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56) Ingvar Johansson, “A Little Treatise of Forgiveness and Human Nature,” 547.

57) David Augsburger, *The Freedom of Forgiveness* (Chicago: Moody Press, 1988), 28. 손철우,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용서”, 181, n.27에서 재인용.

58) 손철우,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용서”, 182.

59) Andrew Fiala, “Radical Forgiveness and Human Justice,” 500.

60) “Forgiveness,” Wikipedia.

## VIII. 나가는 말

이 글은 교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차가운 눈초리와 한국교회 내부의 분열이라는 이중적 어려움 앞에서 한국교회가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개혁주의생명신학 실천운동에 있다고 여긴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교회에는 '회개용서운동'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용서를 하나의 단회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시간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 여김으로써 용서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접근을 비판하고자 했다. 그 중 한 접근은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용서를 주장함으로써 진정한 용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또 다른 접근은 무조건적 용서란 불가능하다고 여겨 용서를 회개를 조건으로만 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일종의 주고받는 교환관계로 이해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이 글에서는 용서를 한 번에 완결되는 일회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우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감정과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용서 능력이 마치 성화 능력처럼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망한 가해자처럼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없어 회개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무조건적 용서를 행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구체적인 보상행위 등을 통해 회개를 실천할 때 피해자의 무조건적 용서가 가해자와의 화해에까지 이른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아울러 용서가 긴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용서의 목표인 화해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화해가 성취되리라는 종말론적 소망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과정으로서의 용서가 죄가 우리 인간에게 침투한 순서대로 의지와 지성, 감

정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을 지적했다. 이는 우리가 용서의 과정을 밟아갈 때 우리의 의지와 지성, 감정 사이에 시간 차이 때문에 생기는 모순과 갈등 앞에서 용서 과정을 낮게 평가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개혁주의생명신학 학술대회에 참여한 우리 신대원 원우들과 교수님들, 모든 분들이 우리의 의지와 지성, 감정을 하나님의 의지와 지성, 감정과 일치되도록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회개용서운동을 실천해나가는 데 이 작은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Soli Deo Gloria.